

해양전략사상가로서의 충무공 이순신 고찰



忠武公修鍊院
研究室長 崔斗煥*

◇ 目 次 ◇

- | | |
|--------------------|-----------------------|
| I. 서 언 | IV. 해군 우위전략으로서의 해전 수행 |
| II. 해양전략의 특성 | V. 결 언 |
| III. 해양전략사상가로서의 주장 | * 참고문헌 |

I. 서 언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으면, 임진왜란에서 싸움마다 모두 이겼다는 사실과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과, 난중일기를 빠짐없이 남겼다는 것과, 시조 한산섬을 지었다는 것과, 가슴에 적탄을 맞고도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그 탄환을 칼로 뽑아냈다는 것을 앵무새처럼 잘도 답한다.

그러면 다시 묻되, 충무공 이순신(이 뒤부터는 충무공)은 전략가인가? 전술가인가? 하면, 전술가라고는 한결같이 쉽게 답을 하면서도 전략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 해군사관학교·해군대학·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문학 석사), 충무공수련원 교수, 충무공 연구실장(現). 저서 : 충무공 이순신 전집, 번역 : 난중일기·임진장초.

왜 그럴까?

첫째는,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과, 둘째는, 충무공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이유들을 굳이 변명해 주자면 첫째는, 현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지낸다는 것이며, 둘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용 난중일기 또는 위인전기집 같은 것에서 한 번쯤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는 하지 않아도 충무공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지금까지 충무공에 관한 연구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충무공을 존경은 하되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바쁘다는 이유, 대충 알고 있다는 이유, 이것은 지식의 깊이에 아무런 역할이 되지 못한다. 한 번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만 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진수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며,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찾는 미덕을 가져서, 연륜이 쌓이면서 혜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무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전략가로서나, 전술가로서의 자질을 논하기 전에, 그런 행위에서 충무공의 사상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Ⅱ. 해양전략의 특성

충무공을 바다를 통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크게는 해양사상과 해군전략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해양사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해양을 경영함으로써 군량을 확보하고 백성의 살림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이며, 해군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해양사상에 입각하여 해군을 전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쟁에서 유리한 전장을 확보하여 승리하는 데 있다.

먼저 해양력(Maritime power)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해양통제(Control of the sea)를 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용을 획득, 유지하고 적국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다.¹⁾

해양전략이라면 오로지 바다를 통해서만 해양력이 결정되므로,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해양전략이 압도적으로 핵심을 이루더라도 해군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공동목표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해군과 더불어 육군도 적절히 작전을 전개한 일도 있었다.²⁾

그래서 “해양전략사상은 군사적 의미에서 볼 때, ‘해양력 우위의 사상이며, 해양을 지배할 수 있어야 대륙도 통제할 수 있다’는 군사 사상적 맥락을 갖고 있다.”³⁾는 것은, 해군은 지상전략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종속되지 않으면서 운용되어야 하며, 해양통제를 자국의 의지대로 할 수 있어야만, 해안에 병력을 투사(投射)하여 지상의 적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400여년 전의 인물인 충무공이요, 그 대표적 전쟁인 임진왜란의 역사를 현대의 이론에 적용시킨다는 자체가 결맞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군사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이라든가 전술로 구분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현대의 이론에 한 번 적용시킴으로써 충무공이 지닌 군사운용의 이론적 배경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⁴⁾

대체로 해군전략 이론이라면, 대륙전략사상(大陸戰略思想)과 해양전략사상(海洋戰略思想)으로 구분되며, 대륙전략사상은 해양거부(海洋拒否 : Sea denial)에 해군전략을 중점에 두며, 해양전략사상은 해양통제(海洋統制 : Sea control)에 해군전략을 중점둔다.⁵⁾

1) S. W. Roskill, ed., The Strategy of Sea Power, Collins London, 1962.

李允熙·權復寅 共譯, 『海洋戰略』(서울 : 淵鏡文化社, 1979), p. 14.

2) 상계서, p. 19.

3) 姜永五, 『海洋戰略論』(서울 : 韓國海洋戰略研究所, 1998), p. 22.

4) 충무공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가 사용한 용어에서 보건대, 『孫子兵法』, 『吳起兵法』에 나오는 말이라든가, 『讀宋史』 등으로 보았을 때, 고대병법인 『武經七書』에는 이미 통달을 했고, 역사에 관한 인식도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姜永五, 전계서, p. 25.

말하자면 대륙전략사상은 지상군 중심의 해군 운용이므로, 해군의 임무는 연안 방어(沿岸防禦)·통상파괴(通商破壞)로써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 조정이나 신립(申稜 : 1546~1592년) 장군 등은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을 주장하여 사실상 현대적 의미로 볼 때에 대륙해군전략을 수행하였다. 물론 당시의 조선은 주력함(主力艦)인 판옥선(板屋船)을 각 수영(水營)별로 25척 정도를 배치하여 진관체제(鎭管體制)의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향토방위 개념으로 방어하다가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의 기동방어 개념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충무공은 해양을 중심으로 전략사고가 확고하였음이 그의 일기나 장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해양전략사상은 영·미(英·美) 중심의 해양학파 마한(A. T. Mahan)과 코베트(J. S. Corbett) 등의 해양통제 이론에 따라 현대 해양강국들의 해양중심 전략이 전개되었으며, 언필칭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고이므로, 이 때의 해군 임무는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해양전략 요소는 고전적 의미에서 제해권(制海權)이라던 해양지배(海洋支配 : Command of the sea)와 현대적 의미에서 해양통제(海洋統制 : Sea control)를 하고, 현존함대전략(現存艦隊戰略 : Fleet in-being), 결전전략(決戰戰略 : Decisive battle), 함대봉쇄전략(艦隊封鎖戰略 : Fleet blockade)에 따라 해양전력투사(海洋戰力投射 : Maritime power projection)가 이루어진다.⁶⁾ 이런 사상은 해양에 관한 매우 발전된 이론이다.

이러한 전략적 요소들이 충무공이 주장한 말들로 비추어 볼 때에, 이미 400년 전에 단호하게 갈파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충무공은 해양전략사상을 가진 해양전략사상가로서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충무공의 해양사상으로 뚝뚝 뭉쳐진 국방체제였다면, 정말 가공할 힘으로써 세계무대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상계서, p. 27.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가 해양전략적 사고에 의해서 해군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귀결이 성립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충무공이 평소에 해전의 이점을 강조함으로써(1593. 9. 14. 장계) 해전의 특성과 수군 운용의 장점을 잘 터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무공의 해양경영 측면에서 수군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강조한 것이 돋보인다. 조선 수군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충무공이 주장한 해군전략 가운데서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보다도 결전전략이다. 충무공은 견내량해전·명량해전을 대표적인 결전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거북선을 돌격임무를 수행케 하여 맨 먼저 적진에 투입시켜 선제 공격을 하였다.

여기서도 만약 일본 함대가 침공할 적에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대마도 근해를 정탐하고, 가덕 응봉봉수감고의 신속한 보고가 있었다면, 바로 결전전략이 수행될 수 있었을 것이며, 왜군이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격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충무공의 해양사상은 현대 군사사상 내지 전략사상을 능가할 정도로 훌륭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해양전략사상가로서의 주장

1. 현존함대전략적 사상에서 본 충무공

가. 상유십이(尙有十二)의 정신

왜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해군인데, 해군으로서 싸움에 나서는 자가 하나도 없고 감사(監司)에게 공문을 보내어도 감독할 생각을 가지지 않으며, 군량조차 의뢰할 길이 없어, 온갖 생각을 해봐도 조처할 도리가 없으니, 해군의 일은 부득이 폐하게끔 되었습니다. 승신(舜臣) 저같은 한 몸이야 만 번 죽어도 아까울게 없지만, 나라 일을 어찌하오리까.⁷⁾

7) 『李忠武公全書』 卷1 「雜著」〈上某人書(2)〉 “倭奴所畏者舟師 而水卒之赴戰者無一人 移文方伯 則略無檢督之意 軍糧尤無所賴 百爾思惟 罔知攸措 舟師一事勢將罷撤 如舜臣一身萬死無惜 其於國事何如.”

이 글은 충무공이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에 있는 글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작성한 시기는 1597년 8월 중순쯤 될 것 같다.

충무공은 확실히 일본군이 조선 수군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조정에서 수군이 약하다고 폐하라고 했으니, 충무공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보다 한 달쯤 전인 1597년 7월 16일 칠천량해전 때에 수군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이 전사하면서, 삼도수군이 거의 궤멸되었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선조가 이 칠천량해전의 패배 사실에 대하여 대신들을 불러 모아 “장차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선조는 더 큰소리로 “대신들은 왜 대답을 못하는가? 이대로 내버려 둔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작정인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왜적을 물리칠 수 있고 국사를 잘 할 수 있단 말인가?”하고 한탄하며 힐책해 보았으나,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륙적 전략사상에서 해군을 운용했다가 낭패를 당한 뒤에 자신의 책임만을 회피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바다에서 힘껏 싸운 통제사 원균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님을 간접 시인하기도 한 것이다.

이 때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병조판서(兵曹判書) 이항복(李恒福)이 극력 주장하여 충무공을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하니, 선조는 허락했다.

그대는 충의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나라 건저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기 바라면서 이제 조칙을 내리니,⁸⁾ ... 수사 이하를 모두 지휘하여 규율을 범하는 자를 일체 군법대로 시행하려니와 나라 위해 몸을 잊고 경우에 따라 나가고 물러나고 하는 것은 이미 그대의 능력을 아는 바라, 내가 구래여 무슨 말을 많이 하리요.⁹⁾

8) 『李忠武公全書』 卷首「教諭」 p. 7〈起復授三道統制使 教書〉“堅忠義之心庶副求濟之望.”

9) 상계서, “水使以下竝節制之 其有臨機失律者 一以軍法斷之 若卿殉國亡身 相機進退 在於已試之能 予曷敢多語.”

선조는 상중(喪中)에 있는 충무공에게 사과해야 했다. 삼도의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거의 궤멸하게 되자, 전략적 사고에서 충무공을 따를 수 없었던 선조나 조정 대신들이 할 말을 그것밖에 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조는 이 명령서에 “지난번에 그대는 직함을 갈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하게 한 것은 역시 사람의 모책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었으며, 그 때문에 오늘 이같이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되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오.”¹⁰⁾라고 하면서 너무 미안하여 할 말이 없다고 두 번이나 거꾸 말했으며 그 앞뒤에서도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곧 충무공에게는 전략적 사고에 잘못이 없었고, 수군의 출전명령의 강요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므로, 충무공더러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라든지, “출전거부는 항명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선조는 솔직한 이 사과문을 포함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통제사 재임명 교서를 7월 22일에 지시하고, 23일에 관인을 찍어 선전관(宣傳官) 양호(梁護)에게 보내어, 그 편에 8월 3일 충무공 장군에게 전했던 것이다.¹¹⁾ 그러나 충무공에게는 통제사의 재임명이 새삼스러운 듯 일어나 숙배하면서 오직 충성으로 나라에 몸 바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15일 동안 강행군하여 8월 18일까지 일행 15명(군관 9명, 군사 6명)을 거느리고¹²⁾ 전비태세의 재정비 작업에 나섰던 바, 경상 우수사 배설(裨楔)의 전선 10척과 전라우수사 김억추(金億秋)의 전선 2척 등 모두 12척에 군사 120명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때 충무공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10) 상계서, “頃者逆卿之職 俾從戴罪之律者 亦出於人謀不臧而致 今日敗衄之辱也 尙何言哉尙何言哉.”

11) 『난중일기』 정유년 8월 3일.

12) 『李忠武公全書』 卷9 「附錄1」(行錄에는 “公卽帥軍官九人 牙兵六人”이라 했으며, 『난중일기』 정유년 7월 18일에는 “余宋大立·柳滉·尹先覺·方應元·玄應辰·林英立·李元龍·李喜男·洪禹功發程”이라 했다.

때에 조정에서는 수군이 무척 약하여 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 하여
통제사 충무공에게 육지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¹³⁾

그러나 충무공은 이런 말에 대하여 조정의 대신들이 전략적 식견이 부족하고
수군에 관한 관심부족(關心不足)과 전략부재(戰略不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
에 수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말을 하였다. 아마도 이 시기에 선전관
이 충무공에게 온 것은 정유년 8월 15일 선전관 박천봉(朴天鳳)이 임금의 분부
를 가지고 왔다고 했으니, 이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신에게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내어 항거해 싸우
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마는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¹⁴⁾

충무공이 이같이 장제한 내용에서 아직도 12척이 있다는 말은 수군의 전투함
이 12척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니, 실로 고약한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
나 이것은 분명 현대적 전략개념에 비추어 보면, 현존함대전략의 진수(眞髓)라
고 할 수 있다. 아직도 12척이 있다는 것과 충무공 자신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적군의 기동에 제한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무공은 그 적은 세력으로도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상우수사
배설, 전라우수사 김억추 등에게 명령하여 “전선을 거북선으로 단장하여 군대의
위세를 돋구도록 하라.”¹⁵⁾고 하고는 그대로 장계를 올렸다.

13) 『李忠武公全書』卷9 附錄 1 「行錄」 “時 朝廷以舟師 甚軍不可禦賊 命公陸戰.”

14) 李芬, 「行錄」 『李忠武公全書』卷9 附錄 1. “今臣戰船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
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矣.”

崔有海, 「行狀」 『李忠武公全書』卷10 附錄 2. “今臣戰船亦有十二 臣若不死 賊亦不
敢侮我矣.”

15) 『李忠武公全書』卷9 「附錄 1」 〈行錄〉 p. 22 “(丁酉年 8月) 十八日會寧浦戰船只十
艘 公召全羅右水使金億秋 使收拾兵船 分付諸將 粧作龜艦 以助軍勢.”

임진년 이후로 적이 감히 충청·전라 등 남방을 겁탈하지 못한 것은 실상 우리 수군이 그 세력을 막은 때문인데, 이제 만일 수군을 폐하면 적이 반드시 호남을 거쳐 한강으로 올라 갈 것이요, 다만 순풍에 돛을 한 번 달면 될 것이니, 그것이 신(이순신)의 두려워하는 바입니다.¹⁶⁾

라고 하면서 해군의 존속(存屬)과 가치(價値)와 그 효용론(效用論)을 이미 400여 년 전에 주장하였던 것이다.

조정에서의 이러한 해군전략 부재는 비단 수군이 없다고 해서 빚어진 명령이 아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개월 전인 1591년 7월에 이미 수군을 파해야 한다는 조정의 의견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육군의 주동이였다.

비변사의 의논이 왜적들이 해전에는 능하지마는 육지에 오르지만 하면 민활하지 못하다 하여 육지 방비에 전력하기를 주장하고 대장 신립은 수군을 철폐하자고 청하여 마침내 호남과 영남의 큰 고을의 성들을 증축하고 수보하도록 명령하였다.¹⁷⁾

조정에서는 신립(申稔)의 장계에 따라 수군을 파하고 육전에 주력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총무공이 급히 장계를 올려,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는 데는 수군이 아니고 누가 한단 말입니까? 수륙전 어느 한 쪽인들 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강변하였다.¹⁸⁾

이렇게 육상의 지휘관들이 말할 때마다 총무공은 수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수군 전략가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우리 해군의 선구자답게 주장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당시에 수군을 없앴더라면,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수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교훈의 역사이다.

16) 『李忠武公全書』卷13 附錄 5 「宣廟中興志」, “賊不敢直突者 實以舟師扼之也 臣一登陸則賊必由西海 達漢水只憑一帆風 此臣所懼也.”

17) 『李忠武公全書』卷13 附錄 5 「宣廟中興志」, “宣祖二十四年辛卯七月備邊司議倭長於水戰若登陸則便不利 請專事陸地防守 大將申稔請罷水軍乃 命湖南嶺南大邑城增築修備.”

18) 『忠壯公鄭運將軍實紀』(광주 : 忠壯公鄭運將軍崇慕事業會, 단기 4325년), p. 460 “朝廷因申稔啓辭罷舟師而專陸戰 公馳啓 以爲遮邊海賊 莫舟師若也 水陸之戰不可廢 朝廷允從.”

2. 결전전략적 사상에서 본 충무공

가. 한 척도 돌려보내지 않겠다(片帆不返)는 정신

선조는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使隻輪不返)”¹⁹⁾고 하니, 충무공은 많은 해전을 해오면서 전략적 사상이 발전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1594년 3월에 “이미 수륙합공(水陸合攻)으로 남아 있는 흉악한 왜적들을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²⁰⁾고 하였으므로, 그 명령이 내리기 전에도 한 척도 돌려보내지 않을 작정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 척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충무공의 전술은 선제기습공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충무공은 무엇보다도 왜적선이 있다는 포구(浦口)마다 찾아다니면서 바다로 나오지 않으면 유인을 해서라도 공격함으로써 일본 수군의 전의를 아예 꺾어버리는 전법을 썼다.

충무공이 거북선을 이용하여 승리하였다는 전략의 적중은 전략가 키랄피(Kiralfy)의 평가에서 알 수 있다.

원래 육상의 인간이었던 풍신수길은 이 재역이 육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함대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 하여 육상과 해상의 그의 병력이 서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일본 전략의 육·해 양용의 성격을 밝혔다. 이 쓰디쓴 교훈이 일본인에게 가르친 것은 그들의 해군이론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육상전투의 성공을 얻기 위해 시간의 낭비를 피하려는 어떤 수단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첫 침략 때에 한국에서 만약 거북선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황해의 북해안에 무적의 조선과 명나라의 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작전은 성공했을 것이 틀림없다.²¹⁾

19) 『李忠武公全書』 卷3 狀啓 1에는 「分送義僧把守要害狀」이며, 『壬辰狀草』에는 계사년(1593년) 1월 26일에 발송하였다.

20) 『李忠武公全書』 卷4 狀啓 16에는 「陳倭情狀」 “水陸合攻 使殘兇餘孽 隻櫓不反 擬雪國家讐怨.”

21) Alexander Kiralfy, “日本 海軍 戰略” 『新戰略思想史』(서울 : 麒麟苑, 1980), p. 493.

이 말은 곧 충무공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최첨단무기인 거북선을 만들어서 운용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시 거북선의 위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충무공은 우선 적의 사기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왜적선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은 결전전략이었다. 그런 결전을 위해서는 전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충무공은 적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가 달랐다. 그가 경상도로 출전하려 갈 때에 왜적을 쳐부술 각오가 어떠했는가?

충무공도 사람이다.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그런 두려움은 지혜와 용기로써 극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첫마디가 수적인 면에서 왜적선이 500여 척이라고 밝혀 놓았다. 대번에 싸우려 들 수가 없다는 태도이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왜적의 사기를 꺾어 놓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곧 우리 수군의 위세를 당당히 가지는 것이었다.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전쟁의지를 사전에 꺾어 놓는다는 것이며, 병법으로 따진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왜적선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여서 간담을 썩늘하게 해놓는 것이었다. 그것이 곧 거북선이다.

나. 거북선을 통한 결전전략을 수행

일본 해군의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북선은 두 번째 출동이 있었던 시기 선조 25년(1592년) 5월 29일부터 충무공은 거북선을 줄곧 이용하여 결전전략(決戰戰略)을 수행하였다.

우수사가 오지 않으므로, 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노랑에 이르니, 영남우수사 원군이 와서 만났다. 적이 머물러 있는 곳을 물으니, “지금 선창에 있다.”고 했다. 곧 쫓아가니 왜놈들은 벌써 물로 올라가서 진을 치고 배는 그 산 아래에 매어 놓고 항전하는 태세가 매우 견고했다.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일제히 달려들며 화살을 비 퍼붓듯이 쏘고 각종 총포들을 우레같이 쏘아대니, 적들이 무서워서 물러나는 데, 화살을 맞은 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왜적의 머리를 뺀 것만도 많으며, 왜선 13척을 불살라 버렸다. 이 싸움에서 군관 나대용이 탄환을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충무공은 거북선을 거느리고서 전투한 첫날의 전황을 이렇게 일기에 밝혀 놓았다. 전투는 사천선창 앞 해상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해전의 결과는 일본 배 13척을 무찔렀으며, 우군도 약간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는데, 군관 나대용과 충무공 자신도 적탄을 맞았다는 기록이다.

이때 전선(戰船) 23척을 참전시켰고, 2차 출동을 끝낸 전투결과 보고서인 당항포에서 왜적을 무찌른 장계〔唐浦破倭兵狀〕속에 거북선이 포함되어 있다. 역시 거북선은 이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의 효과를 거둔 것이었다.

제가 일찍 일본 왜적들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별도로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앞에는 용머리를 붙여 그 아가리로 대포를 쏘게 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어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였다. 비록 적선 수백 척 속이라도 쉽게 돌입하여 포를 쏠 수 있으므로, 이번 출전 때에 돌격장이 그것을 타고 나왔다.²²⁾

충무공은 이 사천에서 해전의 결과를 거북선으로 말미암아 전과를 더 거두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가 창안하여 만든 세계적 전함이니 실로 으스스대고도 싶었을 것이다.

그 전투요령은 거북선으로 하여금 적선에 먼저 돌입하여 공격을 퍼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북선을 “이번 출전 때에” 거기에 돌격장이 탔다는 것은 곧 그 돌격장이 1차 출동 때에 판옥선으로 돌격함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운용되었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바로 군관 이언량(李彦良)이었다. 역시 돌격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돌격정신을 가진 사람을 계속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언량이 참전한 옥포해전과 사천해전에서의 돌격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그 성격은 매우 강직하고 과단성 있으며, 긴급한 상황을 빨리 헤쳐 나갈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22) 『壬辰狀草』 8 「二度唐項浦等四處勝捷啓本」 “臣嘗慮島夷之變 別制龜船 前設龍頭 口放大砲 背植鐵尖 內能窺外 外不能窺內 雖賊船數百之中 可以突入放砲是白乎等用良 今行以爲突擊將所騎.”

이와 같이 충무공이 수행하는 결전전략을 원균은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충무공이 아는 방법은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그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원균은 나이로 따지면 충무공보다 5살이나 많고, 과거에 급제한 선·후배를 따진다면 10년은 더 될 것이며, 정3품으로 된 것만 봐도 전라좌수사로 선조 24년(1591년)에 원균이 임명은 되었으나, 부임하지도 못하고 부령부사(종3품)로 갔기 때문에 적어도 1달은 더 선임이 된다.

또한 정3품의 계급을 요즘과 견주어 본다면, 아마도 준장 내지 소장의 계급인데, 병법의 알고 모르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핀잔을 준다는 것은 선배로서 이미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균이 얼마 만큼 충무공에게 전쟁터에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였는지를 『재조변방지』라는 책에서 보자.

사천(泗川) 바다 가운데로 쫓아가니, 멀리 해상에 산이 하나 보이고, 백명의 적이 장사진(長蛇陣)을 치고, 그 밑에 11척의 배가 연안을 따라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이때 아침 조수는 이미 썰려 가고 항구의 물은 얕아서 배가 전진할 수 없으므로, 이순신이 말하기를 “이곳은 물이 얕고 바다가 좁아서 회선(回旋)하기 어려우니, 거짓 물러나는 척하고 적을 유인하여 바다의 넓은 곳에 이르렀을 때, 큰배로 돌아서 치면 승전할 수 있다.”고 하니, 원균은 분이 나서 바로 쫓아가 공격하고자 하였다. 이순신이 말하기를 “공(원균)은 병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패합니다.”라고 하고서 곧 소리를 불고, 기를 휘둘러 후퇴하였다. 과연 1리를 못가서 적이 배를 타고 쫓아왔다. 이윽고 좁고 험한 곳에 다다르자, 이순신이 북을 한 번 크게 쳐 여러 배가 일제히 돌아서서 바다 가운데 늘어서니, 바로 적선과 수십 보의 거리에서 서로 대하게 되었다.²³⁾

23) 『再造藩邦志』 卷2 “追至泗川洋中 遙見海上一山 有賊百餘 長蛇而陣 其下有十一艘 緣岸列泊 是時早潮已退 港口水淺 海舟不得進 舜臣曰 此地海狹水淺 難於回船 不如佯退 誘賊 至海濶處 我以巨艦回擊 則可以取勝矣. 均乘憤欲直搏戰 舜臣曰 公不知兵 如此必敗 遂鳴螺揮旗 引退而走 行未一里 賊乘船逐之 既到隘口 舜臣鳴鼓一聲 諸船一齊回棹 擺列於海中 正與賊船相對 纔數十步.”

충무공은 이 사천전투에서 있었던 전략수행 과정을 보면, 이 선진포 앞바다는 수로가 좁은 곳이기 때문에 결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천항 넓은 곳으로 유인하여 결전전략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한 달 뒤에 건내량해전에서 수행했던 방법과 거의 꼭 같은 것이다.

원균더러 “병법을 모른다.(公不知兵)”고 한 이 말은 곧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공격 시각의 중요성과 결전전략의 효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충무공은 그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고, 결전전략으로써 앞으로 왜적선을 쳐부수겠다는 것이다.

원래 결전전략이란 것은 적보다 세력이 우세할 때에 펼치는 전략의 한 종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세력이 적보다 많지 않은 데도 결전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충무공에게는 이길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거북선의 활약은 충무공이 사천해전의 상황을 직접 설명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적선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게 하고, 먼저 천자·지자·현자·황자 등의 여러 총통을 쏘게 하자, 산 위와 언덕 아래와 배를 지키는 세 곳의 왜적들도 철환을 비오듯이 쏘아대는 데,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도 섞여서 쏘고 있으므로, 저는 더욱더 분하여, 노를 빨리 저어 앞으로 나아가 바로 그 배를 두들기니, 여러 장수들이 일시에 구름같이 모여, 철환·장전·편전·피령전·화전을 천자·지자총통 등으로 비바람 같이 쏘면서 저마다 힘을 다하여 천지를 진동하는데, 왜군들은 중상하여 엎어지는 자와 부축하며 끌고 달아나는 자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으며, 높은 언덕으로 물러가서 진치고서는 감히 나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였다.²⁴⁾

24) 『壬辰狀草』 8 「二度唐項浦等四處勝捷啓本」 “先令龜船突進賊船 先放天地玄黃各樣銃筒則山上岸下守船三屯之後 亦放鐵丸 亂發如雨 間或我國人相雜發射爲白去乙 臣益增憤勵促檣先登 直搗其船 則諸將一時雲集 鐵丸長片箭皮翎箭火箭 天地字銃筒等 發如風雨 各盡其力 聲振天地 重傷顯什者 扶曳奔走者不知其數 仍以退屯高陵 無敢有進前之意。”

이 말대로라면, 충무공의 결전전략은 간단하다.

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이용한 전투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철저한 화력 우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북선에는 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 등 여러 화기를 탑재하였다. 결전전략을 수행하는데, 맨 먼저 거북선을 돌입시켰다. 거북선에서는 탑재한 무기로써 공격하였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선(戰船)으로써 연이어서 총공격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사천해전을 전개하고 진행과정의 여러 상황을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자.

사천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적진이 산 위에 뱀처럼 서린 듯 하였다. 또 적선 12척이 바닷가에 대어 있는데, 공(이순신)은 아침 조수가 나갈 때라 큰 배가 물 얕은 항구로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짐짓 패한 듯이 하여 피어내어 한바다에서 쳐부순다면 섬멸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드디어 나팔을 불며 배를 돌리니, 적이 예상한 대로 따라 나오므로 거북선을 앞세워 여러 전함으로 쳐들어가니, 엮어지는 적선과 물에 빠지는 적들이 바다에 가득하고, 남은 적들은 해안에서 울부짖을 뿐이었다. 전투중에 공도 또한 탄환에 맞아 팔에서 등을 꿰뚫었으나, 공은 끝까지 활을 들어 독전했으며, 싸움이 끝난 뒤에야 칼 끝으로 탄환을 파내었더니, 온 군중이 놀라는 것이었다.²⁵⁾

그런데 거북선을 처음으로 선을 보인 사천해전이 매우 치열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전과를 많이 올리기도 하였지만 충무공 자신과 군관 봉사 나대용(羅大用)도 적의 철환을 맞았으며, 전 봉사 이설도 화살에 맞는 등 전투현장의 지휘관 3명이 부상을 당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이 사천해전에서 우리 수군은 일본선 13척을 격파하여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는 큰 성과를 올렸다.

25) 『李忠武公全書』 卷10 附錄 2 〈行狀〉 “到泗川則遙見一陣 蛇盤于山 又十有二船 緣渚而泊 公曰 早朝已退 鉅艦難進於淺港 佯北誘之 擊於大洋 則可以剿之 遂鳴喇返船 賊果踵至 乃以龜船先之 以諸艦壓之 船之覆者 賊之漂者滿海 餘賊臨岸 叫喚而已 方戰公亦中丸貫臂 徹背 公猶手弓矢督之事 既用刃挑出 一軍驚歎.”

자! 여기서 우리는 충무공이 거북선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첫째로, 거북선을 어떤 전선(戰船)보다도 앞장서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용아가리(龍口)에서 현자총통으로 철환을 치켜 쏜다는 것이다.

셋째로, 다른 전선은 거북선의 뒤를 이어서 공격을 퍼붓는다는 것이다.

충무공의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 일본군이 수륙병진으로 기습 공격해 왔지만, 충무공은 그들을 쳐부수는 데 수륙합동공격작전을 수행한 것이 매우 특이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350여년 전에 이미 충무공은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략적, 전술적 탁월한 식견이었다.

지난 6월 15일 창원에 있던 왜적이 함안으로 돌입한 뒤, 16일에 무려 800여 척이나 된 부산과 김해에서 웅천·제포·안골포 등지로 옮기었고, 그 밖에도 왕래하는 배들이 얼마인지 그 수를 알지 못하는데, 적이 수륙으로 함께 날뛰는 것이 서쪽으로 침범할 기색이 현저하므로 이억기 및 원균 등과 함께 온갖 방책을 의논한 끝에 적의 길목인 견내량과 한산도 바다 가운데를 가로막아 진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선봉 적선 10여 척이 바로 견내량으로 향하여 오다가 우리들의 복병선에 쫓겨가고는 다시 나오지 않는데, 반드시 우리 군사를 유인하여 좌우와 뒤를 에워쌀 계책이거니와 저의 생각으로는 요로를 굳게 지켜 편안히 있다가 피로해진 적을 기다려서 먼저 선봉을 쳐부순다면, 비록 백만의 적이라도 기운을 잃고 마음이 좌절되어 도망치기에 바쁠 뿐 아니라, 한산 바다는 작년에 대적이 섬멸당한 곳이므로, 이곳에 진을 치고서 그들이 움직여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치기로 죽기로써 맹세하였습니다.²⁶⁾

26) 『壬辰狀草』 33 「逐倭船狀」 “去六月十五日 昌原之賊 移突咸安之後 十六日 水路賊船 無慮八百餘隻 自釜山金海移泊于熊川齊浦安骨浦等處 其他往來船隻 不知其數是白在如中 水陸俱舉 顯有西犯之意乙仍于 舉李億祺元均等 百爾籌策 賊路要衝是白在 見乃梁閑山島洋中 把截列陣爲白有如乎 … 去六月二十六日 先鋒賊船十有餘隻 直向見乃梁爲白如可 爲臣等伏兵船被逐 更不出來爲白去等 必其誘引我師 左右繞後之計是白在果 臣等之意 堅守要路 以逸待勞 先破先鋒爲白在如中 數百萬之衆 氣喪心挫 退屯無暇叱分不諱 同閑山一海段前歲大賊 就殲之地是白乎等用良 屯兵此地 以待其動 同心挾攻次以 決死誓約爲白齊.”

이 사료는 1593년 7월 1일에 보고한 것으로서 견내량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견내량과 한산도 앞바다에는 한 해 전 1592년에 우리는 대첩을 하고 일본군은 대패를 한 곳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우세한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 역시 바다가기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하다.

대개 수륙으로 적을 치는 것이 모두 급한데, 근일에 와서는 의논이 분분하여 수군의 방책에 있어서는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실시되지 못하니, 난리가 일어난지 수년 동안 백방으로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품은 소원이 도리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같은 못난이는 만번 죽어도 달게 받겠으나, 당장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날에 있어서 전혀 어림어림 넘기기로만 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뒷날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생각해 보아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원통하고 민망함이 그지없습니다.²⁷⁾

이 사료는 충무공이 1593년 윤11월 17일에 보고한 “연해안의 군병기를 수군에게 전속시켜 줄 것을 청하는 장계”에 적힌 글이다.

이 글에서 보듯이 수군으로써 왜적을 무찔러야 하겠는데, 조정에서는 수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전전략으로 왜적을 소탕하겠다는 국방의지가 헛되게 돌아갈 것만 같다는 말이다.

왜적이 스스로 트집을 잡아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죄없는 백성을 죽이고, 또 서울로 쳐들어가 흉악한 짓들을 저지른 것이 말할 수 없으며,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통분함이 뱃속에 맺혀, 이들 왜적과는 같은 하늘

27) 『李忠武公全書』 卷3 狀啓 2 「請緣海軍兵糧器全屬舟師狀」 “大槩水陸討賊 俱是急務 而近日以來論議紛紜 舟師策應凡百措事十未一施 變生數載百爾經營 終始如一之 願反歸虛地如臣驚劣萬死不固甘當國歌再造之日 全務姑息於此 噬臍決難追及 寤寐思惟 不知所爲痛悶無極.”

아래에서 살지 않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각 도의 배들을 정비하여 곳곳에 주둔하고, 동서에서 호응하면서, 육지에 있는 장수들과도 의논하여 수륙으로 합동공격해서, 남아 있는 왜적들을 한 척의 배도 못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²⁸⁾

이처럼 충무공은 왜놈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살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보다 더한 국가관을 나타낸 말도 드물 것이다. 게다가 왜적선을 단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짐작이 갈 만하다.

일본은 다시 한국을 삼키려 하는 행동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말은 오히려 일본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할 것이다. 더 놀라게 할 것이다.

“근세 일본 국민사”를 펴내어 대일본제국의 위대한 영광을 노래했던 도쿠도미소호는 그 책에서 “우리는 그때를 되돌아보건대,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한 번은 한성에, 다음에는 평양에 머물면서도 그만 조선국왕을 놓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로다. 그야 선발대의 어려움이 있음은 짐작하나, 명나라 군사의 지원 출병하기 전에 추격을 했던들 필히 기공(奇功)을 얻었으리라 생각하노라.”라고 서술하면서 이 의문의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판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²⁹⁾

이 말은 곧 소서행장의 오랜 체류로서 침략전쟁의 목적지인 명나라로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조선국왕 선조를 볼모로 항복받아 내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절호의 조선 점령을 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이다.

이 불만은 아직도 일본사람들에게는 가시지 않고 있어 언젠가 다시 우리 한국에 번질 것이라 예상한다.

28) 『李忠武公全書』卷1, 雜著, 「答譚都司宗仁禁討牌文」, “倭人自開靈端兵渡海 殺我無辜生靈 又犯京都行兇作惡 無所紀極 一國臣民痛入骨髓 暫不如此賊共戴一天 各道舟艦無數整理處 處屯駐 東西策應 謀與陸地神將等 水陸合攻 使殘兇餘孽隻櫓不返擬雪國家之怨讐.”

29) 小田 實, 「民岩太閤記」, 김운·강응천 옮김, 『소설 임진왜란』 상(서울 : 웅진출판사, 1992), p. 275.

3. 봉쇄전략적 사상에서 본 충무공

가. 한산도에서 바닷길을 가로막는다.

충무공은 함대봉쇄전략은 쓰지 않은 것 같다. 주요 항만을 봉쇄함으로써 적의 기동을 제한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전략이지만 400여년 전의 사상으로 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봉쇄전략에서 한걸음 나아가면 길목차단전략이 수행된다. 길목이란 곧 하나의 관문(關門)이니, Choke point이다. 지브롤터해협이라든지, 파나마운하라든지, 베링해협이라는 것 등등은 모두 길목이 된다.

충무공은 이런 사고에서 이미 길목차단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해양전략사상가로서의 으뜸가는 혜안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은 우리나라를 하나의 대륙으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를 알았다는 것이다.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라,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을 한산도로 옮겨 치고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입니다.³⁰⁾

이것은 충무공이 1593년 7월 16일 지평(持平 : 사헌부의 정5품) 현득승(玄德升 : 충무공보다 19살 아래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며, 『난중일기』에도 계사년 7월 14일에 “한산도 들포(閑山島 頭乙浦)로 옮겼다.”고 했다. 이것은 전라좌수사로서 전투를 지휘하는 가운데 전략적 사고가 발전되었음을 말해준다. 곧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고려한 전략가적 주장이다. 말하자면 현대적 용어로 해상봉쇄전략이라 할 만하다.

삼도수군을 통제할 수 있는 기지를 한산도로 옮기고자 한 이유는 그 한산도가 전략적으로 요충지라는 것이다.

30) 『李忠武公全書』卷15, 補遺(1), 李殷相 譯, p. 449, “湖南國家之保障 若無湖南 是無國家是以昨日進陣于閑山島 以爲遮按海路之計耳.”

이분의 행록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7월 15일 충무공은 본영이 전라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해상을 막고, 지휘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침내 진을 한산도로 옮기기를 청하여 조정에서도 이를 허가하셨습니다. 그 섬은 거제도 남쪽 30리에 있는데 산이 바다 구비를 둘러싸서 안에서는 배를 감출 수 있고, 밖에서는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으며, 또 왜선들이 전라도를 침범하려면 이 길을 거치게 되는 곳이므로 충무공이 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니 이때 이곳으로 와서 진을 치게 된 것이다.³¹⁾

충무공은 나라를 보전할 수 있는 호남의 길목인 한산도를 요충지라고 생각한 만큼, 한산도 앞바다는 왜적선 60여 척과 싸워 그 배들을 모두 침몰시킨 그야말로 대승전을 한 곳이기도 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왜적의 세력이 이처럼 덩비게 된 것은 모두 바다에서 막아내지를 못하고, 적으로 하여금 방자하게 상륙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연해안 고을에는 깊은 참호와 성의 견고한 곳이 많은데, 성을 지키던 군졸들이 비겁하게 소문만 듣고 간담이 떨려 모두 도망갈 생각만 품었기 때문에 적들이 포위하면 반드시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부산 및 동래의 연해안 여러 장수들이 배들을 강하게 정비하여, 바다에 가득 진을 벌려 엄격한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를 보고 힘을 헤아려 병법대로 진퇴하여 적을 육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더라면 나라를 육되게 한 환란이 반드시 이런 극도에 이르기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분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³²⁾

31) 『李忠武公全書』卷9 附錄 1 「行錄1」

32) 『李忠武公全書』卷2 狀啓 1, 「赴援慶尙道狀(2)」 “臣之妄意 今之賊勢憑凌 皆出於不如水戰 使賊恣意登陸 而慶尙沿海郡縣必多深溝高壘之險 守成恟卒聞聲慄膽 咸懷奔潰之心 圍則必陷 一無得全之城 向使釜山東萊沿海諸將 盛理舟楫蔽海列鎮 揚示掩擊之威 相勢度力進退有方 使不得攀緣陸路 則辱國之患 必不至於此極 言念及此 感慨激切.”

역시 충무공은 바다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 나라 땅에 왜놈들이 발을 디더놓고 흉한 짓거리를 하게 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막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하루아침에 정립된 것은 아니다. 왜적이 처음 쳐들어왔을 적에 그들을 무찌르고자 충무공이 처음으로 출동하러 가기 직전에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그때부터 짝트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들의 돌아갈 길목을 막아 끊어서 배들을 쳐부순다면, 적들이 후방을 염려하여 바로 후퇴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듯하여 오늘 5월 4일 첫닭이 울 때에 출항하여 바로 경상도로 향합니다.³³⁾

역시 바다의 길목이란 쳐들어 올 때나 되돌아갈 때나 같은 길임을 생각할 때, 그 길목을 점령한다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다.

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다에서 처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왜놈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임금에게 간접적으로 꾸짖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수군이 작전을 하지 않고, 오직 육전에서 성을 지키는 방비에만 전력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수백년 기업(基業)이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변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배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이 만약 뱃길로 본도(전라도)를 침범해 온다면, 제가 해전으로서 결사적으로 담당하겠으나, 육지로 침범해 오면, 본도의 장사들은 싸움말이 한 필도 없어서 대응할 도리가 없습니다.³⁴⁾

33) 『李忠武公全書』 卷2 狀啓 1, 「赴援慶尙道狀(3)」 “要截其歸路撞破其船 則庶有顧忌直還之慮 今五月初四日鷄初鳴發船直向同道.”

34) 『李忠武公全書』 卷2 狀啓 1 「玉浦破倭兵狀」 “臣之妄意 禦敵之策 不以舟師 作綜進退 而全務陸戰 守成之備使 國歌數百年基業 一朝變成 賊藪言念及此 哽塞無語 賊若乘船 移犯本道 則臣願以水戰決死當之 而陸路移犯 則本道壯士 一無戰馬 策應未由.”

이 사료 또한 바다를 지켰더라면 수백년 기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 것을 육전에만 힘쓰고 바다에 관해서는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왜적의 상륙에 대비하여 육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방책을 말하고 있다.

충무공은 세력의 수적인 면에서는 열세했던 때도 있었지만, 전장환경의 활용 측면에서는 언제나 우세한 입장에 서서 싸워 이긴 것이다. 특히, 충무공은 전투 결과보고인 장계에서,

“...적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정작 수군활동에는 힘쓰지 않고, 전혀 육전에만 하기 위하여 성을 지키는 데만 힘쓰다가, 마침내 나라의 수백년 터전 이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만일 뱃길로 전라도를 침범해 온다면, 제가 나가 목숨 걸고 해전으로써 당적해 내겠습니다.”³⁵⁾

이 말은 곧 해상을 제패해야 왜적을 막을 수 있고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는 근대적 해군전략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로에 장애물 - 수중철책을 설치하여 적선의 행동을 막거나 부자유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그 실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수(종포)와 돌산도 사이에 수중철책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전쟁중에는 시간이 매우 긴박(緊迫)함에도 명량수로에서 해남 우수영과 진도 사이에 수중철책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써 왜적선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다.

4. 군사기획가적 사상에서 본 충무공

가. 목장과 농사를 배메기하여 군량을 확보한다.

충무공은 호남에서 농사를 지어 군량을 확보하는 요람이며, 나라의 초석이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국방을 아울러 지킬 수 있는 계책이 확고하게 섰던 것이다.

35) 『李忠武公全書』 「玉浦破倭兵狀」

군병들의 양식이 가장 급한 일인데, 호남 한 지방이 말로는 보전되었다 하지만 모든 물자가 고갈되어 조달할 길이 없다. 제 생각에는 본 도의 순천과 홍양 등지에 넓고 비어 있는 목장과 농사지를 만한 여러 섬이 많이 있으므로, 혹은 관청 경영으로 하든지, 혹은 민간에 주어서 배매기하든지, 혹은 순천과 홍양의 방비하고 있는 군사들로 하여금 들어가 농사짓는데 전력하다가 사변이 있을적에 출전하면 싸움에나 지킴에나 방해됨이 없이 군량도 유익할 것이다.³⁶⁾

충무공은 그가 생각한 바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논리라는 것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알렸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해로통행첩으로 군량을 확보하다.

충무공의 업적 가운데서 군량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해로통행첩(海路通行帖)”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비단 군량 뿐 아니라, 국가를 부강케 하는 방편인 것이다. 충무공이 1597년 12월 5일에 고하도로 진을 옮기고 나서 군인을 1,000여 명을 확보하긴 했으나, 군량을 확보할 길이 없어 늘 걱정하였다.

충무공은 보화도(寶花島 : 고하도)로 진군하자, 군사가 1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군량이 모자라는 것을 근심하여 마침내 민간인에 명령하여 “삼도 연해안에 공사선(公私船)을 막론하고 통행첩이 없이 다니는 배는 간첩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니, 누구나 다 통행첩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배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통행첩의 값을 달리 받았는데, 큰 배는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피란민들은 모두가 곡식을 싣고 다니는 때라 통행첩을 받아가기만 하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와서 규정대로 곡식을 바치고 통행첩을 타다니, 열흘도 채 못 되어 군량이 1만여 섬이나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백성들을 모집하고,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모으며, 또 구리와 쇠를 거두어 들어 대포를 새로 만들고, 나무를 찍어다 배를 만들며, 백성들에게 각기 생업을 주어 장사도 하게 하여 소문이 파다하게 떨치고, 그리하여 섬의 형세가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이 되었다는 것이다.³⁷⁾

36) 『完譯 李忠武公全書』 上, 卷3 狀啓 2, 「해전과 육전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아뢰는 계본」, p. 198.

37) 『李忠武公全書』 卷13 附錄 5 紀實上 「宣廟中興志」, p. 348.

총무공이 해로통행첩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부족한 군량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곧 바다가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도 한 달만에 1만여 섬을 확보한 것은 하루에 333섬을 거둔 것이니 통행선이 큰 배만으로도 하루에 111척이나 되었고, 중간 배라도 167척이나 되었음을 볼 때 통행량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전쟁중이고 많은 어민들이 피란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5. 전술운용적 측면에서 본 총무공

가. 수륙합동으로 공격하다.

총무공의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 일본군이 수륙병진으로 기습공격해왔지만, 총무공은 그들을 쳐부수는 데 수륙합동공격작전을 수행한 것이 매우 특이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350여 년 전에 이미 총무공은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략적·전술적 탁월한 식견이었다.

지난 6월 15일 창원에 있던 왜적이 함안으로 돌입한 뒤, 16일에 무려 800여 척이나 되는 적선이 부산과 김해에서 웅천·제포·안골포 등지로 옮기었고, 그 밖에도 왕래하는 배들이 얼마인지 그 수를 알지 못하는데 적이 수륙으로 함께 날뛰는 것이 서쪽으로 침범할 기색이 현저하므로, 이역기 및 원군 등과 함께 온갖 방책을 의논한 끝에 적의 길목인 견내량과 한산도 바다 가운데를 가로막아 진을 벌렸습니다...

지난 6월 26일 선봉 적선 10여 척이 바로 견내량으로 향하여 오다가 우리들의 복병선에 쫓겨가고는 다시 나오지 않는데, 만드시 우리 군사를 유인하여 좌우와 뒤를 에워쌀 계책이거니와 저의 생각으로는 요로를 굳게 지켜 편안히 있다가 피로해진 적을 기다려서 먼저 선봉을 쳐부순다면, 비록 백만의 적이라도 기운을 잃고, 마음이 좌절되어 도망치기에 바쁠 뿐 아니라, 한산 바다는 작년에 대적이 섬멸당한 곳이므로, 이곳에 진을 치고서 그들이 움직여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치기로 죽기로써 맹세하였습니다.³⁸⁾

38) 『李忠武公全書』 卷3 狀啓 2, 「逐倭船狀」

이 사료는 1593년 7월 1일에 보고한 것으로서, 견내량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1592년에 견내량과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 해전에서 우리는 대첩을 하고 일본군은 대패를 한 곳이기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우세한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 역시 바다가기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하다.

대개 수륙으로 적을 치는 것이 모두 급한데, 근일에 와서는 의논이 분분하여 수군의 방책에 있어서는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실시되지 못하니, 난리가 일어난 지 수년 동안 백방으로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품은 소원이 도리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같은 못난이는 만 번 죽어도 달게 받겠으나, 당장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날에 있어서 전혀 어림어림 넘기기로만 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뒷날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생각해 보아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원통하고 민망함이 그지없습니다.³⁹⁾

이 글은 충무공이 1593년 윤 11월 17일에 보고한 “연해안의 군병기를 수군에게 전속시켜 줄 것을 청하는 장계”에 적힌 글이다.

이 글에서 보듯이 수군으로써 왜적을 무찔러야 하겠는데, 조정에서는 수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전전략으로 왜적을 소탕하겠다는 국방의지가 헛되게 돌아갈 것만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염치없는 후안무치로만 몰아붙여서도 안 될 것이다. 또 비겁한 사무라이라고도 닦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도입명(假道入明)”을 처음부터 조선이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날뛰다니 나쁜 것은 일본이 아니다. 일본의 그같은 주장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조선이 아닌가!”로 되어 잘못을 한 쪽은 조선에 있지 침략자 일본이 아니었다.

이같은 윤리·논리의 전도는 당시에만 있었던게 아니고, 조선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금의 세상에도 이같은 논리의 전도는 횡행하고 있다.

39) 『李忠武公全書』 卷3 狀啓 2, 「請緣海軍兵糧器全屬舟師狀」 “大槩水陸討賊 俱是急務 而近日以來論議紛紜 舟師策應凡百措事十未一施 變生數載百爾經營 終始如一之願反歸虛地 如臣駑劣萬死不固甘當國歌再造之日 全務姑息於此 噬臍決難追及 寤寐思惟 不知所爲痛悶無極.”

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수군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미더운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수군마저 이와 같이 되었으니… 더더욱 원통하다.⁴⁰⁾

이 때는 충무공이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던 때이며,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이 지휘하여 절영도·부산포로 나갔다가 군사를 많이 잃었다는 말을 1597년 7월 16일에 듣고 한 말이다. 더구나 이 날은 충무공이 칠천량해전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그 수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은 이들이 지난 7월 18일인데, 이 때는 아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충무공은 수군을 얼마나 아끼고 길러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는 것은 실로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잇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충무공이 수군을 아낀 것만큼 선조는 충무공이 있었기에 건 기대가 컸다고 본다. 그래서 1597년 1월 28일에는 통제사라는 직책을 원균에게 주고자, 충무공의 허물을 억지로 들추기까지 하면서 비망기로 유명순(柳永詢)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수군뿐인데, 통제사 이승신은 나라의 중대한 임무를 맡고도 속임수만 부렸고, 적을 내버려 둔 채 치지 않음으로써 가등청정이 안심하고 바다를 건너오게 하였다. 결국에는 붙잡아다 신문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한창 적들과 맞서 있기 때문에 아직 공을 세워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⁴¹⁾

선조의 이중성격(二重性格)은 바로 여기서도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충무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선조는 충무공을 엄청나게 곤궁에 빠뜨렸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막아내는 데 충무공과 우리 수군이 아니었더라면,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40) 최두환, 『새번역 난중일기』(서울 : 학민사, 1996), p. 324. “丁酉七月十六日乙巳 … 我國所恃 惟在舟師 舟師如是 無復可望… 尤極痛惋”.

41) 『宣祖實錄』 卷84. 丁酉年 1月 28日(기미)

IV. 해군 우위전략으로서의 해전 수행

1. 해전의 특성

충무공은 바다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로 말미암아 해전을 하면 반드시 이로운 점이 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가 여러 장수들에게 “저 적들이 매우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만약, 거짓으로 물러나면 적은 반드시 배를 타고 우리와 서로 싸우려 할 것이니, 이때에 우리는 적을 바다 북판으로 끌어내어 합력하여 격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고 단단히 약속한 뒤에 배를 돌려 일리(一里)도 못 나오자, 왜적 200여 명이 진에서 내려와서 반은 배를 지키고 반 남짓은 언덕 아래 모여서 총을 쏘며 날뛰는데, 만일 싸우지 않으면, 도리어 약한 것을 보일 뿐 아니라 마침 조수가 밀려들어 점점 배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⁴²⁾

이 사료는 사천해전 때에 충무공은 왜적을 유인하여 바다 한북판에서 결전하려고 꾸민 전략이었다. 왜놈들은 충무공의 심리전에 그대로 끌려들어 바다 북판으로 나왔다.

이 글에서 우리는 해전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전장(戰場)이 바다라는 것이다. 비록 항만을 끼고 있고, 적들이 내륙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재물을 약탈하더라도 끝내 그들은 바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바다로 나올 때는 배라는 수단으로 이동해야 하며, 그 배는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곳으로 쉽게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적군이 항만 안에 들어있을 적에는 우군이 항만 깊숙이 진입하게 되면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42) 『李忠武公全書』 卷2, 狀啓1 「唐浦破倭兵狀」

넷째는, 끝내 적을 무찌르고자 하면 바다 바깥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바다 가운데서 싸우는 것은 속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다.

해전의 이런 특성은 곧 전술적 운용 측면에서 우열이 승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충무공은 함포전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정거리가 긴 대형 함포를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무공은 대표적으로 견내량해전에서 학익진으로 적을 섬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해전에서 학익진으로 함포전을 수행하였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약 저 적들이 형세가 궁하여 배를 버리고 상륙하면, 모조리 섬멸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우리들이 거짓으로 포위를 풀고 퇴군할 것을 보이어 진을 후퇴시키면, 적들이 반드시 그 틈을 타서 배를 옮길 것이니, 그때 좌우에서 쫓아 공격하면 거의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령한 뒤에 퇴군하여 한쪽을 풀어주자, 총각선이 과연 열어준 길을 따라 나왔습니다.⁴³⁾

이 사료는 당항포해전에서 왜적선을 유인하여 쳐부순 내용이다. 왜적들은 마을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고, 일부는 배에서 지키고 있었다. 충무공은 왜적을 유인하여 바다 가운데서 결전하였던 것이다.

한산도는 거제와 고성 사이에 있으며, 사방에 해엄쳐 나갈 길이 없고, 적이 비록 육지로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굽어 죽게 될 것이므로, 먼저 판옥선 대여섯 척을 시켜서 선봉으로 나온 적선을 뒤쫓아서 습격할 기세를 보였더니, 여러 배의 적들이 일시에 돛을 달고 쫓아나오므로 우리 배는 거짓으로 물러나 돌아나오자 적들도 줄곧 쫓아오므로 바다 가운데 나와서는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학익진을 벌려 일시에 진격하여 각각 지자·현자·승자 등의 각종 총통을 쏘아서 먼저 두세 척을 쳐부수자, 여러 배의 왜적들이 사기가 꺾이어 도망하므로 여러 장수나 군사들이 이긴 기세를 뽐내어 앞을 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번갈아 쏘니, 그 형세가 바람과 우레갈아 적의 배를 불사르고 적을 사살하여 일시에 거의 다 없애 버렸습니다.⁴⁴⁾

43) 『李忠武公全書』 卷2, 狀啓1 「唐浦破倭兵狀」

44) 『李忠武公全書』 卷2, 狀啓1 「見乃梁破倭兵狀」

이 사료는 통상 한산대첩이라는 견내량해전의 한 장면을 말한 것이다.

해전 가운데서도 이처럼 통쾌한 사례도 없을 것이다. 왜적을 유인해 오는 것도 일품이거니와 한꺼번에 해치웠다는 말은 세계에서 내노라는 영웅 제갈량도, 넬슨도, 도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낼 수 없는 전투장면이다.

이것은 충무공이기에 해낼 수 있으며, 바다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접전한 다음 날 또다시 돌진하여 그 소굴을 분탕하고 그 배들을 모조리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위로 올라간 적들이 여러 곳에 가득했는데, 그들의 돌아가는 길을 차단한다면 모두 궁지에 빠진 도적들이 최후 발악할 염려가 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하여야만 섬멸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풍랑이 거슬러 전선이 서로 부딪쳐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으므로 전선을 수리하고,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고, 또 육전에서 크게 도망쳐 나오는 날을 기다려 경상도 감사 등과 수군과 육군이 함께 진격하여 남김없이 섬멸하려 합니다.⁴⁵⁾

1592년 9월 1일 부산포해전을 마치는 순간을 어디에 잡느냐이다. 그것은 공격의 시기이므로 충무공은 병력을 부산포 내륙으로 투사하여 상륙작전까지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실시하지 못하고 군사를 철수하였다.

역시 충무공은 일본군을 무찌르는 데는 수군과 육군이 합세해야만 된다는 전략을 펴던 것이며, 육군이 지원되지 않으면 수군으로써 상륙작전을 펴면서까지 수륙합동공격을 고려했던 것이다.⁴⁶⁾

2. 해전을 하면 이로운 점이 더 있다

무엇보다도 충무공의 해양전략사상의 진수(眞髓)는 그가 보고한 장계 속에

45) 『李忠武公全書』卷2, 狀啓1 「釜山浦破倭兵狀」, “翌日又欲還突焚蕩其巢穴盡破其船隻 上之賊彌滿諸處 斷其歸路 則慮有盡成窮寇之患 不得已水陸俱擊庶可盡殲 而加之以風浪逆截 戰船相觸 多有破碎之處 修繕兵船 優備軍糧 又待陸戰大遁之日 擬與慶尙監司等水陸俱進殲討無餘.”

46) 이 상륙작전은 계사년(1593년) 3월에 웅포해전에서 육군의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수군으로써 상륙시켜 공격한 적이 있다.

있으며, 1593년 9월 10일에 보고한 내용에서 충무공의 해양사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충무공의 사상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해상과 육상에서 방비하는 제책에는 각각 어렵고 쉬운 점이 있다. 요즘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해전은 어렵고 육전은 쉽다고들 하여 수군의 여러 장수들이 육전으로 나가고, 연해안의 군졸들도 또한 육전으로 나가는데 수군의 장수로서는 감히 제어할 수 없고, 전선의 사부와 격군도 조정할 길이 없으며, 여러 장수들의 용감하고 용렬함을 무엇으로 가려낼 수 있으리까. 저는 수군의 직책을 맡아 큰 싸움을 겪었으므로 대략 해전과 육전의 어렵고 쉬운 점과 오늘의 급선무를 들어 망령되이 다음의 해전에 진술한다. 삼가 갖추어 아뢰니 엇드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장이가 10명 중에 8~9명이며, 용감한 자는 10명 중에 1~2명인데, 평시에 분별하지 않고 서로 섞여서 모여 있으므로 무슨 소리만 들어와도 문득 도망해 흩어질 생각만 내어 놀래어 없어지고 자빠지며 다투어 달아나니, 비록 그 안에 용감한 자가 있더라도 홀로 흰 칼날을 무릅쓰고 죽기로 돌격하여 싸울 수가 있겠는가. 만일, 정선한 군졸들을 용감하고 지혜있는 장수에게 맡겨서 그 소질과 능력에 따라 잘 지도했다면 오늘의 사변이 반드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전에서는 많은 군졸들이 죄다 배 안에 있으므로, 적선을 바라보고도 비록 도망해 달아나려 해도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노를 재촉하는 북 소리가 급하게 울릴 때, 만약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이 뒤를 따르는데, 어찌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겠는가. 거북선이 먼저 돌진하고 판옥선이 뒤따라 진격하여 연이어 지자·현자총통을 쏘고, 따라서 포환과 시석을 빗발치듯 우박 퍼붓듯 하면 적의 사기가 이미 꺾이어 물에 빠져 죽기에 바쁘니 이것은 해전의 쉬운 점이다.

그러나 전선의 수가 적고, 수군 중에서 빠져 달아나는 자가 요즘에 와서 더욱 심하니 만일 전선을 많이 준비하고 또 격군을 보충할 길이 열린다면 비록 대적이 무수히 침범해 와도 능히 감당하며, 능히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적세를 보니 남쪽으로 도망해 온 뒤에 아직도 바다를 건너지 않고 영남 연해변의 고을들이 죄다 저들의 소굴이 되었으니, 그들의 소행을 살펴보매 흉제를 헤아리기 어렵다. 만일, 적들이 수륙으로 합세하여 일시에 돌격해 오면 이렇게 외롭고 약한 수군으로서는 그 세력을 막아내기 어렵고, 또 군량을 이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것이 제가 지나깨나 걱정하는 것이다.

수사는 수군의 대장인데, 무릇 호령을 내려도 각 고을 수령들은 소관이 아님을 핑계하고 전혀 거행하지 않으며, 심지어 군사상의 중대한 일까지도 내버려두고 빠뜨리는 일이 많이 있어 일마다 늦어지게 되니, 이런 큰 사변을 당하여 도저히 일을 처리하기 어려우니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는 감사와 병마사의 예에 의하여 수령을 아울러 지휘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⁴⁷⁾

충무공은 배를 타고 해전을 하는 것이 부하를 지휘하는 데 용이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육지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죽기로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충무공은 무엇보다도 해전이 쉽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군에 소속한 연해안 각 고을의 여러 종류의 팔장군(括壯軍)들을 전적으로 수군에 소속하게 하고, 군량도 또 수군에 속하게 하여 전선을 갑절이나 더 만들게 하면”이라고 한 말은 수군 위주의 전략을 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전선을 250여 척이나 건조하게 되면, 그 군세의 위엄으로서도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바다를 지배하는 데는 전함이 필요하며,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적군을 지배하게 되어 이긴다는 것이다. 요즈음의 말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상업을 지배하고 상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충무공은 바다를 통한 해군전략의 선각자임을 말할 수 있다.

3. 전쟁원칙의 적용에서 본 충무공

전쟁원칙의 항목은 각군에 따라 다르며, 해군도 각 나라마다 다르다. 특히, 전쟁원칙이라는 군사전술의 문제는 목표(目標)·기동(機動) 및 공세(攻勢)·집중(集中)·지휘통일(指揮統一)·기습(奇襲)·절제(節制)·정보(情報) 및 경계

47) 『完譯 李忠武公全書』 上, 卷3, 狀啓2 「해전과 육전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아뢰는 계본」, pp. 197~198.

(警戒)·사기(士氣) 등의 원칙이 있다.⁴⁸⁾ 충무공이 어떤 전쟁원칙을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봄으로써 얼마만큼 훌륭한 전술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⁴⁹⁾

물론, 한 가지씩의 원칙들이 독립하여 운용되지 않는다. 원칙들마다 모두 연계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전쟁원칙의 종합예술이라고도 할만하다.

가. 목표와 집중의 원칙

모든 군사작전의 궁극적 목적이 적의 전투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충무공은 옥포해전이 자기로서는 처음으로 겪는 전투이므로 상황 판단의 확실성에 대한 자신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책의 성공 보장에 대한 강박 관념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상도의 지형과 물길에 대한 사정을 낱낱이 알려달라고 하여 도상 연습을 끝내었으며, 경상우수사 원균을 만나 지역정보와 왜수군의 활동내용에 대해 토의하고서 그 지역에 밝고 자기 책임구역에 맨 앞장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원균으로 하여금 적진 속으로 쳐들어가 무찌르고 그 승세를 타고 충무공 등이 일제히 공격하여 목표한 왜선에 돌격하여 적을 쳐부수었다.⁵⁰⁾

옥포해전은 정보의 수집과 심리적 안정된 사기를 기반으로 공격목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견내량해전 등 다른 해전에서도 거의 비슷한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정유재란 때에 특사로 내려온 황신(黃愼)과 도원수 권율(權慄)의 출전 명령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한 데는 다름 아닌 요시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정보의 부정확이라는 것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격목표로 삼을 왜적선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48) 『해군기본교리』 해교 0-1(해군본부, 1996)을 참조

49) 전쟁원칙을 충무공의 전략사상에 적용시킨 것은 姜永五의 『海洋戰略論』(韓國海洋戰略研究所, 1998), pp. 252~268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50) 趙成都, 『壬辰狀草』 狀7

말하자면, “적은 부대로서 이동하면 기습당할 우려가 있고, 만일 큰 부대가 이동하면 적이 모를리 없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⁵¹⁾고 한 말은 참으로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나. 지휘통일의 원칙

전투부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지휘는 단일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 지휘의 통일이 되었을 때이다. 특히, 전투에서 집중·공격·기동·경계·기습의 원칙 등을 조정·통합하여 작전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을 통일하고 전투의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곧 단일 지휘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⁵²⁾

무엇보다도 전쟁을 하는 국가적 대사에서 일사불란한 지휘는 참으로 중요하다. 임진왜란 때에 처음으로 수행한 전투인 옥포해전이 좀 늦게 출항되어 지금까지도 약간의 불만섞인 비판을 듣는 이유도 지휘통일의 원칙을 소홀히 다룬 데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충무공의 지휘통일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정은 멀리서 지휘할 수 없으니 도내에 있는 주장의 호령에 맡긴다.〉고 하시었으나, 신(이승신)은 다른 수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지휘관으로서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겸관찰사 이광(李光)·방어사 곽영(郭嶸)·병마절도사 최원(崔遠) 등에게도 분부하신 사연을 낱낱이 알렸습니다.”⁵³⁾

고 한 말에서 충무공의 기본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전투지휘의 시작이나 결과에서도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지휘권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

51) 『宣祖修正實錄』卷31, 宣祖 30年 2月 1日(壬戌), “多發戰艦 則賊必無知之 少則反爲所襲遂不行.”

52) 『軍事理論研究』(육군교육사령부, 1987), p. 285.

53) 『李忠武公全書』卷2 狀啓3, 「赴援慶尙道狀(1)」

였다. 옥포해전의 결과를 쓰는 과정에서 우선 원균은 자기의 작전구역이며, 합동작전을 하여 승리한 해전이므로 충무공에게 보고서 작성에 대해 이렇게 상의한 일이 있다.

원균 : 누구의 공이 크든간에 함께 싸워 이겼으니 연명(聯名)으로 장계를 올립시다.

충무공 : 공(원균)과 더불어 힘을 합하여 대적을 무찔렀으나 아직까지 다 섬멸하지 못하였소. 이같은 작은 전과를 구태여 행조(行朝)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도(他道)에서 창졸간에 달려 오느라 미처 병기도 다 갖추지 못하고 왔으니, 장차 적장의 머리를 얻은 다음에 다시 장계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⁵⁴⁾

원균은 충무공의 의견에 따랐고, 충무공은 사람을 시켜 원균이 왜선에서 노획한 금병풍(金屏風), 금부채(金扇) 등을 그의 장계에 적어 행조에 보냈지만, 그 결과가 원균에게는 불만족스러워 따로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전공이 모두 스스로가 세운양 과장되게 기록되었다.

이때 행조에서는 위급한 처지에 있었고, 승전보고를 처음 받은 것이므로, 충무공의 공을 높이 평가했고, 그 뒤 충무공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삼았으니 원균은 불만을 품게 되고 크게 성내어 드디어 서로 협조하지 아니하였다.⁵⁵⁾

이것이 아마도 충무공이 옥에 갇히는 죄목의 하나인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죄에 빠뜨렸다는 죄”가 되기는 하지만, 충무공에게는 단 한 가지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⁶⁾

54) 『宣祖實錄』卷36, 4. 26 “大捷之後 均欲馳啓行朝 舜臣始曰 與公戮力奔奴不足矚也 如此小捷何可馳啓朝廷乎 我他道倉卒來援 兵器未修備所得於賊徒可相資也 均從之 舜臣密會人賚所得兵器及賊船所載金屏風金扇等物馳啓行朝 誇伐戰功盡歸于已時行朝方急得報大喜搖排舜臣統制使 均由是大怒遂不相協.”

55) 『宣祖修正實錄』宣祖 25. 5 “初元均請舜臣援兵 敗戰欲聯名狀奏 舜臣曰目徐之乃夜自具狀 奏備陳均失軍無依擊賊無功之將 均聞之大憾 自此各自奏功兩人構隙自此始.”

56) 최두환, “忠武公 李舜臣 拘束의 適否性 考察”, 『海洋戰略』 제100호(해군대학, 1998. 9), p. 247.

다. 기동과 공세의 원칙

기동은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아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적에게 충격을 주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⁵⁷⁾

조선수군을 지휘하던 조정의 초기 실수는 기동함대 운용개념의 부재(물론 당시에 이런 전략개념이 부재했다고 보지만)였다. 실제로 제승방략(制勝方略)은 기동방어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한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정의 조치도 없었다.

그러나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을 뒤에 만들어 충무공이 임명되어 삼도의 수군을 통합하여 지휘함으로써 기동함대 운용개념이 다소나마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좋은 증거가 바로 정유재란이다. 왜수군은 조선수군을 완전 격멸하려고 해륙병공(海陸併攻)으로써 원군 함대를 칠천도에서 격멸한 뒤 충무공 함대를 끝까지 추격하여 싸운 것이 명량해전인데, 여기서 충무공은 전선이 13척 뿐일지라도 끝까지 해전으로 버텨⁵⁸⁾ 임진왜란 초기전투에서 치른 지휘통일과 유리한 위치로의 기동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은 충무공이 결전전략이라는 공세적으로 전투선들을 운용한 것에서 훌륭한 전술가였음도 알 수 있다.

라. 정보와 경계의 원칙

충무공의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정보의 수집과 그 처리이다. 충무공은 전라도를 관할하였으므로,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다. 그래도 조정에서 나가 싸워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그곳의 지리와 물길 등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교환하였으며, 부하장수들로 하여금 적정을 살펴서 빈틈없이 보고하게 하였다.

57) 『해군기본교리』 해교 0-1(해군본부, 1996), p. 3-10.

58) 강영오, 전계서, p. 124.

맨 첫 해전인 옥포로 진입하기 전에 군호(암호)⁵⁹⁾를 써서 은밀기동을 함과 동시에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본영에 유수장(留守將)을 두어 본영을 지키게 하였으며, 왜선을 발견하면 신속히 보고케 하여 전투태세를 항상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충무공이 얼마나 경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데는 1594년 4월에 당항포해전이 있을 즈음에 적선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도 빈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3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배들을 정돈하고 무기들을 엄히 갖추고, 한편으로 각처 산봉우리 꼭대기를 다니면서 보도록 망장(望將)을 파견하여, 멀리 적선을 살피고 즉시 달려와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⁶⁰⁾

바로 이것이 충무공이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의 하나이다. 그래서 강항(姜沆)의 말처럼 “이순신은 바다의 간성이다. 죄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침내 감옥에 잡아넣고, 원균으로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불가하다.”⁶¹⁾ 고 했던 것이다.

마. 사기 향상

충무공이 부하들에게 사기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가장 좋은 예는 옥포해전 때의 일이다. 충무공은 처음 해전에서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옥포선창에 줄지어 정박해 있는 왜선을 보고는 당황하는 군사들을 무엇보다 먼저 안정시켜야 할 책임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59) 『난중일기』 임진년 5월 2일 “군호를 용호라 하고, 복병을 산수라 한다.”고 했다.

60) 『李忠武公全書』卷4, 狀啓20 「唐項浦破倭兵狀」 “令三道諸將 整勵舟楫 嚴鍊器具 一邊各處通望峯頭 望將定送 瞭察賊船 登時馳告.”

61) 姜沆, 『看羊錄』 「倭國八道六六州國」 “李舜臣爲水路長城 罪狀未著 而卒從吏獄 以元均代其任 則不可也.”

그래서 충무공은 자신의 긴장감을 풀고 부하들의 동요를 막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망동하지 말고 산처럼 정중히 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고 호령하며, 부하들을 다독거렸던 것이다.

사기는 많이 먹이고, 잘 재워준다고 해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옥포해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부하들이 적진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아무리 배가 부른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기진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병들고 굶주린 군졸을 거느리고서는 도망가는 적들을 막고 섬멸하기가 어려울 형편이다. 그러므로 우선 번차례로 돌아가 농사짓게 하며, 검하여 병든 군사를 간호하고 군량을 준비하고 전선을 정비하면서… 기회를 타서 전쟁에 나가도록 약속하겠습니다.⁶²⁾

이것은 1593년 4월 6일 옥포해전 결과를 써올린 장계인데, 이 전라좌도의 장정들은 모두 수륙으로 전쟁에 나가고,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군량을 운반하느라고 경내(境內)에는 남은 일꾼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나라 전체에 유행병마저 번져 죽는 자가 줄을 잇듯이 많았다.

그래서 충무공은 이 열악한 상황을 못내 아파했고, 백성을 염려하고 근심해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드높은 사기를 유지하는 데는 지휘관에 대한 신뢰감이다. 전쟁에서는 그 지휘관의 지휘에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는 이보다 더 높은 사기는 없을 것이다. 물론, 승리의 뒤에 공정한 논공행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충무공의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62) 『李忠武公全書』卷3, 狀啓2 “率此病餓之卒 謀截舉遁之賊 勢似難能 故先使相遞歸農 兼護病卒 鍊備兵糧整朔舟楫…乘機馳截次…約束.”

V. 결 언

지금까지 전략사상가적 측면에서 충무공을 살펴보았다. 그것도 종래에 대륙적 전략사고에서 한층 발전된 초현대적 해양전략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충무공의 이런 해양전략사상이 4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거의 비슷한 논리로 군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충무공더러 훌륭한 전술가라고는 한결같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막상 전략가인가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연구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필자는 지금까지 충무공을 연구해 오면서 바로 이런 전략가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첫 해전인 옥포해전을 현대적 해군전략 개념의 “마한(Mahan)이론”으로 분석해 본다면, 충무공은 함대세력이 열세했지만 일본 대함대(大艦隊)의 지대(支隊)에 대하여 과감히 공격하여 섬멸하면서 정세적 방어의 특징인 소모전략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함정(艦艇)은 기지 - 항구에 대기하고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한데, 더구나 왜수군이 경상도 우수영 일대의 항포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에 충무공이 기습하는 등 현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전쟁원칙을 적용한 것을 보더라도 훌륭한 전략가요 전술가임을 알 수 있다.

역시 충무공은 기획능력이 뛰어난 행정가일 뿐 아니라 해양을 통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세계적 해양전략사상가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다.

그는 현대해양전략의 요소라고 불리는 현존 함대전략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대 전략개념을 초월하여 상대적으로 세력이 열세하더라도 결전 전략을 수행하여 그것도 13척으로 333척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적군을 맞아 자기가 보유한 척수보다도 더 많은 31척을 격침시킬 수 있었고, 겨우 전사자

2명, 부상자 2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대의 최신 전략·전술로도 쉽지 않을 전과를 획득했던 것이다. 더구나 임진왜란 전체 전투 106회 가운데 29회가 해전이었으며, 여기서 26회를 충무공이 지휘하여 모두 이겼으며, 싸워서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으며, 전사자 겨우 67명, 부상자 148명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하여 왜적선 700척을 격침시키고, 23척을 나포했으며, 671급을 목 베었다는⁶³⁾ 역사적 사실은 현대의 원자 핵폭탄으로 피해를 입힌 전쟁을 빼고는 전무후무한 해전사(海戰史)의 진수를 남겼다.

이러한 전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곧 전략기획가요, 바다를 통한 전략가일 뿐 아니라 전술가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무공더러 확실하게 탁월한 해양전략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해양강대국이라는 나라들도 해양전략에 입각하여 바다를 우선하여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을 볼 때 충무공이 이미 400여년 전에 수행했던 길목차단 전략적 사상은 참으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신선한 착상이며, 이는 앞으로도 많이 교훈삼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63) 최두환, 『새로 본 충무공 이순신의 신념 : 오 하늘이여, 이 원수를!』(도서출판 경남, 1998), p. 78 및 『忠武公 李舜臣 全集』卷5 「하늘에 맹세하니 강산이 떨고」(서울 : 우석출판사, 1999), p. 63.